열렬한 사랑

KIA 없이는 못살아~

■ KIA 사랑 '타이거즈 클럽'

비가와도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꿋꿋이 관중석을 지키면서 'KIA 타이거즈'를 연호하는 야구 팬들이 있다. 좋아하는 선수의 배번이 새겨진 클럽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을 누비는 이들은 포털사이트 싸이월드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KIA 타이거즈 사랑을 외치고 있는 타이거즈 클럽(http : //kia-tigers.cyworld.com) 회원들이다.

지난 2003년 6월1일 온라인상에 클럽이 개설된 이후 타이거즈 클럽에는 3천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온라인 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100여명의 회원이 꾸준히 경기장을 찾으며, 함께 야구를 즐기고 있다.

클럽 회원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하다. 사는 곳도 광주와 전남은 물론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구다.

회원 중에는 야구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타향살이를 하는 부산 아가씨도 있다. 순천 제일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장유신(28)씨가 그 주인공이다. 장씨는 장흥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열혈팬들 사이에서 타이거즈를 응원하며 성장한 야구 팬이다.

홈팀을 응원하는 게 소원이었던 장씨는 아예 전남대로 진학을 해 광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지금은 순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1시간 가량을 운전해 광주를 오가고 있다. "부산에서 눈물겨운 타이거즈 팬 생활을 하다가 좋아하는 팀을 가까이서 마음껏 응원할 수 있으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는 야구장에 혼자 가기 그래서 친구들에게 표와 먹을 것을 사주며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시간 맞는 회원들과 야구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장 씨의 야구 사랑은 학교에서도 유명하다. 교무실 한쪽에 프로야구 일정표가 걸려져 있고, 자신의 수업시간에도 야구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할 정도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야구 퀴즈를 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드레날린은 기분 좋을 때 분비가 되는 데 예를 들면 KIA의 윤석민이 승리투수가 됐을 때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촉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홈팀 응원'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장 씨의 또 다른 소원은 공부에 지친 반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광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다양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타이거즈 클럽은 클럽장을 중심으로 광주 운영자 3명, 서울 운영자 2명, 인천 운영자 2명이 원활한 클럽 운영을 돕고 있다. 운영자들은 클럽 게시판에 경기 기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정리해 올리기도 하고 회원들이 선수 동영상과 사진, 경기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웹마스터의 역할을 한다. 단체 관람이나 정기 모임이 있을 때는 신입회원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운영자들의 몫이다.

클럽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자 황원창(26)씨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졌다. 얼마 전에는 서울과 광주에서 클럽 5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도 가졌고, 다른 서포터즈 팀들과 연합 응원을 추진해 300여명의 팬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황 씨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작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타이거즈 팬이 돼서 클럽 운영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타이거즈라는 공통점 분모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만큼 클럽 활동이 일상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프로필과 기록을 술술 외울 정도로 야구광인 황 씨는 기회가 되는 대로 원정응원에도 나서면서 올해는 대구·부산·대전·광주를 찾았다.

팀의 승패에 울고 웃는 팬이지만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게 황 씨와 회원들의 목표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이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볼링 대결이다. 힘찬 응원과 함께 경기를 관람한 뒤에는 회원들끼리 볼링을 치면서 친목을 도모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경기가 없는 스토브 리그에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개막을 기다리면서 시즌 전망을 안주 삼아 술잔을 주고 받기도 한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면 클럽 분위기도 침체 되지만 클럽 회원들은 비난이 아닌 비판으로 팀을 걱정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는 경기장 밖의 또 다른 선수들이다.

무등경기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열렬한 타이거즈 팬이자 광주 운영자 임정건(28)씨는 "몇 년 사이 동호회 규모가 부쩍 커졌지만 점차 안정된 체계를 갖추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인간관계도 쌓을 수 있고, 야구의 묘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동호회다"고 말한다.

틈틈이 원정경기에 나서며 20년 넘게 야구 사랑을 외치고 있는 임 씨의 소원은 타이거즈 팬들의 오랜 숙원인 V10의 기쁨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야구를 볼 수 있다는 자체도 행복이지만, 회원들과 KIA의 우승을 지켜 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회원 100명 중엔 부산 아가씨도

좋아 하는 팀 맘껏 응원할 수 있어 좋아요

경기없는 날엔 시즌 전망 안주 삼아 술한잔

오랜 숙원 'V10' 기쁨 누렸으면…